

오클로스는 그 문전에 오기도 부끄러워할 체질로 바뀌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무력하게 된 원인이며, 마침내는 민중과 유리될 뿐 아니라 예수에게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던 교회가 최근에 자던 잠에서 깨어나 잊었던 오클로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결과 눌린 자들에게 관심하게 되고, 저들의 입과 손발이 되기로 서서히 본래의 자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정부운동도 정치운동도 아니다. 단지 잃었던 예수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자기 동일성을 찾으려는 단면의 노출일 따름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것은 한국 그리스도교회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그러나 본래 모습으로의 급전환을 강요하는 명령에 의한 것이다.

새로운 국면을 의식한 것은 참된 자유가 없으면 선교의 자유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나 행위가 범죄로 몰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된 데서 비롯한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사랑을 범죄로 모는 것은 민중에 대한 정치·경제적 구조악이라는 것이다. 이 마당에 이제 그리스도교회의 방향은 뚜렷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그리스도교의 기본자세

나는 그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 나뭇의 몇 가지 기본자세의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첫째, 교회는 정당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교회 자체의 직접적인 관심사일 수 없다. 교회의 관

심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상 그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것도 그런 의미의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을 뜻한다. 이것은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길이다.

둘째, 그리스도교는 본래적인, 새로운 가치관 위에서 새로운 윤리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윤리의 거점은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감상을 지양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그것은 가난하고 눌린 오클로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에 뺏긴 그리스도교의 본래의 것을 도로 찾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셋째, 오클로스를 위한 사랑의 운동이 조직화되어야 하고, 저들이 체념에서 희망으로 옮겨질 만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청사진은 그저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여야 한다. 조직화는 연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서 네가 당하는 일이 곧 내가 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까닭은 저들을 억누르는 악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노의 단순한 폭발이나 파괴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양하는 길이며, 정치 · 경제의 횡포를 견제하는 길이다.

넷째, 그리스도교회의 어떠한 운동도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에 폭력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마태 26, 52)는 예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폭력의 악순환에서 이 역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최후의 역사적 결정은 하느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길을 택하고 판정은 하느님께 기대는 신앙을 최후거점으로 해서, 곧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느니 예수가 십자가에 다소곳이 처형되었듯이, 3·1운동 선언을 끝내고 투옥될 것을 기다려 손을 내민 33인들처럼, 김찬국·김동길이 투옥되었듯이 수난의 길을 선택하며 의의 증인이 된다. 그게 바로 무릎을 꿇고 사는 대신 선 채로 끌려가겠다는 민중의 소리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르 8, 34)는 예수의 지시이다.

■ 1975년 4월 민청련사건 석방인사 환영모임에서의 강연.